

■ 2025년도 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사업 심의 총평

1. 연극/뮤지컬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 포함) 사업 연극/뮤지컬 분야
- 회의일시 : 2024년12월11일(수) 10:00~17:00
- 회의장소 : 대학로 미술관3층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수미, 손신형, 안경모, 엄현희, 진영섭

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 포함)은 문화예술 분야 청년 취업기회를 장려하고 실무경험을 제공해 전문 인력을 육성·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관 및 단체 예술활동과 창작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화예술 현장에 신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계와 문화예술 분야 청년층의 상생을 도모하는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은 지원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과 무대기술인턴십 지원이 통합돼 진행되었습니다. 단체의 신청인력 조건이 최대 8명에서 최대 7명으로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예술인력은 문화예술연수단원이 ‘예술기획·경영’ 인력과 ‘예술창작·실연 인력’으로, 무대기술인턴은 무대기술 인력으로 나뉘져 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 연극·뮤지컬’은 190건(심의대상: 177건)이 지원 신청했고,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34명의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연수단원(예술기획·경영, 예술창작·실연)과 무대기술인턴을 합한 인원입니다. 심의기준은 신청단체의 예술활동 노력(40%), 신청단체의 인력운영 적정성(30%), 단체의 고용환경 개선 노력(30%)으로, 심의위원들의 정성평가가 요구되는 지표는 최근 3개년 신청단체의 예술활동 성과와 노력, 2025년 단체의 예술활동 계획, 단체의 2025년 신청인력 운영계획, 단체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의 수준입니다. 심의는 심의위원들의 전수 검토와 평가로 예심을 가졌고, 대면 심의회의인 본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려운 창작환경에 대해 기본으로 동의하며 공공지원 수혜의 정당성을 갖는지를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연수단원의 입장을 고려해 신청단체에서 연수단원에게 적절한 교육과 실무의 경험을 만들 수 있는지도 논의하였습니다. 연수단원을 신청한 직군이 신청단체에서 상근인력인지, 즉 단체의 인적구성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며 꼼꼼하게 점검하였습니다. 무대기술인력지원은 특히 공간의 성격과 상주 인력을 살펴 보았습니다. 단체에 따라 심의위원 사이에서 상반된 의견과 평가가 제시되는 경우 토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가며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신청한 단체들은 예술단체 및 특히 대전과 대구 등 지역에 자리한 단체 및 공간, 지역기반의 협회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축제, 인형극과 어린이청소년극, 마임 등 장르기반의 협회 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뮤지컬 장르는 중소형 제작사들이 신청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심의위원들 사이 비교적 이견이 없이 높은 평가를 받은 단체의 경우 신청한 인력을 최대한 배정해 주었으며, 인력 숫자 조정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 따른 배분으로, 단체가 인력을 신청했지만 배정받지 못하는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예술기획·경영과 예술창작·실연 분야를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립을 제외한 공립 단체도 신청자격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인력을 채용할 다른 경로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본 지원의 목적대로 지원을 통해 신규 인력이 예술가 자원으로 효과적으로 유입돼 예술계 기반이 다져지기길 바랍니다. 단기적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술계 청년층과 문화예술 현장의 유익한 상생이 이뤄져야 지원의 취지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 일동